

“빈곤과정” 서평 (『빈곤과정』, 조문영, 2022)

손병돈*

“빈곤과정”은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 빈곤을 과정으로서 바라본, 빈곤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이다. 과정으로서 빈곤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미는 다음의 본문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빈곤과 불평등은 숫자로 축약할 수 있는 조건도, 스냅샷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도 아니다. 부단한 과정이고, 고된 분투에 가깝다” (144쪽)

우리는 언제부턴가 숫자로 표현된 결과로서의 빈곤에 익숙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15%, 노인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이다’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결과로 나타난 빈곤만으로 빈곤을 생각하여 왔다. 과정으로서 빈곤을 접근하는 것과 결과로서 빈곤을 접근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숫자로 결과로 빈곤을 바라본다면, 어떤 사람이 빈곤하고, 빈곤하지 않은지 구분하는데 주요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찌하여 빈곤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역사로서 현재의 빈곤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 빈곤한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려 할 뿐, 현재 그들 모습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와 같이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을 보지 못한다. 결과로서 빈곤을 보면, 빈곤은 우리 사회의 일부에게만 존재하는 현상이며,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어떻게 제공할까라는 빈곤정책의 대상이자 객체로서만 빈곤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과정으로서 빈곤을 보게 되면, 빈곤은 어디에나 있으며, 쪽방촌, 고시원, 다세대 주택, 임대아파트 단지 등 지척의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난을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다. 빈곤은 나와 내 가족의 삶에 달라붙을 수 있다. 책 “빈곤 과정”은 우리의 인식, 고민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던 빈곤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빈곤과정”은 저자가 인류학자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빈곤에 관한 저자의 모든 연구들을 모아 쓰여졌다. 이 책은 한국과 중국의 빈곤 현장에 대한 연구기록, 빈곤 수업에서 얻은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쓰여졌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1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바뀐 빈곤 관련 풍경들을 그리고 있다. 주먹구구식 빈곤대책인 생활보호법이 운영되던 시절에는 최저생활보장이 권리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빈곤행정이 이루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큰 기대와 희망이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빈곤현장에, 빈곤자의 삶에 기대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가져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획됨에 따라 가난은 특정한 양식과 문법에 고이고 말았다. 우리의 삶속에 있던 빈곤이 기초보장 수급자 ‘저들의 문제’로 고립되게 되었고, 그 결과 빈곤 문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메시지의 차원이 되어 버렸다. 이제 빈곤을 우리 시대의 정치적 핵심 의제로 삼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어 버렸다. 빈곤행정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인간적인 믿음과 보장 등 인간냄새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생활보호법이 있던 시절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정, 생활을 잘 아는 통장이나 반장,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빈곤을 보증하면, 생활보호 수급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증명과 같이 숫자와 기록,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빈곤은 수급자로 인정될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저자는 이러한 기초보장 행정을 관료-기계로 표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관리에만 관심을 둘 뿐 빈곤층의 권리와 욕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설계하지 않는다는 반빈곤 활동가의 지적이 따깝게 느껴진다.

2장에서는 빈곤정책이 의존을 문제화하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사람들이 제도에 의존하고, 타인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정당하고 자연스런 행위양식인가 아니면 손가락질 받아야 할 문제적 행동인가? 이 장에서는 자활사업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빈곤현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빈민운동의 역사에서 ‘자립’, ‘자활’은 재산, 소득, 인맥, 학력, 기술 등 의존할만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 외부 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상호의존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빈민운동이 밀돌이 되어 성장한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문제 삼으며, 빈곤의 낙인화를 조장한다고 비판받는다. 아울러 빈민운동을 할 당시에는 활동가-주민이라는 동지적 관계이었는데, 자활사업에서는 실무자와 클라이언트라는 사실상 고용인-피고용인이라는 관계로 변화되어, 수급자들을 근로로 강제하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의 고충

이 그려지고 있다.

3장과 4장은 중국 빈곤 노동자 2명의 삶의 궤적을 그린 문화기술지이다. 3장은 중국 선전의 폭스콘 노동자로 살아가는 한 여성 노동자의 6년간 삶을 기록하고 있다. 가난한 노동자로, 자원 봉사자로, 보험판매자 그리고 가사와 돌봄노동 등 다양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면서 부단히 가치를 만들어 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소외의 경험도 누적되어온 빈곤 여성 노동자의 삶의 궤적을 자세 히 보여준다. 4장은 하얼빈에서 폐품을 수집하며 살아가는 농민공 여성이 자신이 살던 농촌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도시의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중심으로 중국 빈민 여성 노동자의 삶의 궤적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빈곤이 부단한 과정이자 고된 분투임을 보여준다.

2부 5-8장은 글로벌 빈곤의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학생들의 해외봉사 활동(5-6 장), 그리고 선양 한인 타운에서 하향이동과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인 이주자들의 삶(7장), 그리고 <빈곤 인류학>이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과 반빈곤 활동가들이 마주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긴장들을 그리고 있다. 2부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글로벌 빈곤 퇴치라는 명분아래 이루어지는 대학생들의 해외자원봉사 열풍의 이면들을 보여주는 5-6 장이다. 9.11 테러 이후 빈곤이 세계적인 테러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글로벌 빈곤 퇴치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였고, 정부와 기업, 대학, NGO가 이합집산하며 거대한 반 빈곤 산업이 구축되었다. 청년 봉사자들의 열정은 이런 과정에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음 을 이 책은 보여준다. 글로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한국 대학생들은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뛰어난 정의수호와 공공가치를 대변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기계 발과 타인에 대한 봉사를 결합하는 '명품인재'가 될 것을 요구받는 현실속에서 빈곤에 대한 가벼운 개입으로 자신의 커리어 구축과정에 빈곤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꼬집고 있다. 8장은 <빈곤의 인류학>수업에서 학생들과 진행한 프로젝트를 연구 현장으로 그려내고 있다. 교육·문화 자본을 갖춘 대학생 청년들의 불안에 깃든 우울과 열망이라는 양가성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반빈곤 활동가와 대화하며, 도시 빈민들을 만나는 상황의 긴장들을 담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빈곤층은 왜 자립할 수 없는가'라는 학생들의 질문은 '우리는 왜 자립, 자활에 이렇게 집착하게 되었을까', '자립, 자활 담론은 어쩌다 이렇게 범람하게 되었을까'로 바뀌게 되는 등 학생들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갖게 된다.

3부 9장 '인류세의 빈곤'은 지구의 위태로움이 강렬히 포착되는 시대에 어떻게 빈곤에 접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자의 제안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지구생활자·파괴자들은 '발전의 꿈'을 치열하게 붙들어 왔는데, 팬데믹, 기후위기가 다가오는 현실속에서 지구와 오래 동거하고 싶은 인간이라면, 취약하고 유한한 존재, 빈곤이라는 문제, 빈곤을 둘러싼 공론장, 빈곤에 맞선 비판·저항과 함께 머무르고 살아간다는 감각과 인식, 의지와 노력이 지구라는 너른 지평에서 창

발하는 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자는 제안한다.

이렇게 “빈곤과정” 책은 빈곤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 결과로서 빈곤을 바라보는 접근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 빈곤 연구의 현실에서 빈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생각하게 해 준다. 사회과학도들에게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간 빈곤 연구를 하며, 냉철한 이성만 강조하고, 뜨거운 가슴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